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6: 사랑의 피상적 표현

『신앙감정론』 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중 여섯 번째 소극적 표지, 인쇄 221~223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명제를 세웁니다. 감정 속에 사랑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감정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탄은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은 확실한 표지”라는 반대 주장을 다룹니다. 그는 사랑이 가장 높은 은혜라는 점은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귀한 것일수록 가짜도 많다는 원리를 들어 그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다음 성경의 세 장면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식어 버리는 많은 사람의 사랑(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던 무리와 '변함없는 사랑'을 따로 축복한 바울(에베소서 6장),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 줄 듯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든, 강하고 뜨거워 보이는 사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표지 카드

표지 6(소극): 감정 속에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감정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지는 않는다.

사랑은 가장 탁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묘함과 사람 마음의 자기기만은 바로 이 사랑을 가장 열심히 흉내 냅니다. 성경도 강하고 진해 보이던 사랑이 식어 버리거나 헛것으로 드러난 사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러니 '사랑이 느껴진다'는 사실은 진짜임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가짜임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 1. 명제와 반대 입장: "사탄은 사랑할 수 없다"

에드워즈는 사랑의 감정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는 그 감정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표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닌지'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사랑이 보인다고 진짜로 볼 수 없듯이, 사랑이 보인다고 가짜로 의심할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편 사람들은 사랑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보여 주는 확실한 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사탄의 본성은 적개심과 악의이므로 정반대인 사랑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 주장의 전제를 먼저 인정합니다. 사랑은 지식이나 예언, 기적, 방언보다 귀합니다.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숭고한 것이고, 참된 믿음의 생명이자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러니 사랑에는 가짜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1. 사랑이 보여도 진짜·가짜 판정 불가
2. 반대 주장: 사탄은 사랑을 못 만든다
3. 에드워즈도 사랑이 최고의 은혜라 인정
4. 사랑은 참된 믿음의 생명이자 본질
5. 그러나 '가짜는 없다'는 결론은 틀림

> **고린도전서 13:1**
>
> (본문이 떠올리는 구절) 사람과 천사의 방언보다 사랑이 귀하다는 말의 배경
>
>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 **고린도전서 13:2**
>
> (본문이 떠올리는 구절) 예언·지식·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사랑이 크다는 근거
>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2. 탁월할수록 가짜가 많다

이 장의 중심 논리입니다. 철이나 청동보다 금과 은의 위조품이 더 많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와 루비는 흔해도, 길가의 돌을 위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한 것은 속까지 똑같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조범들은 겉모양을 정교하게 흉내 내는 데 온갖 기술을 씁니다. 에드워즈는 특효약을 예로 듭니다. 좋은 약일수록 가짜가 많고, 가짜 약은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몸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니 속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교묘함과 사람의 자기기만은 가장 높이 존중받는 은혜를 흉내 내는 데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랑과 겸손에 가짜가 가장 많다고 그는 말합니다.

1. 금·은·보석일수록 위조품이 많다
2. 귀한 것은 속은 못 베끼고 겉만 정교히
3. 가짜 명약은 닮아도 유익이 없다
4. 사탄과 자기기만은 최고의 은혜를 노린다
5. 가짜가 가장 많은 은혜: 사랑과 겸손

> **(이 절은 성경 인용 없이 일상 비유로 논증합니다)**
> 다음 절부터 성경 사례로 이 원리를 증명합니다

“어떤 것이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것의 모조품들은 더욱 많다.”

📜 3. 식어 버리는 종교적 사랑

에드워즈는 성경이 이 점을 분명히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일종의 종교적인 사랑이 있어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이 그런

식는다고 말합니다. 하반절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에드워즈는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식어 버린 사랑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처음에 있었던 사랑의 뜨거움은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견디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이 이 논증에 담겨 있습니다.

1. 종교적 사랑도 은혜 없이 있을 수 있다
2. 많은 신앙고백자의 사랑이 식는다
3.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4. 식은 사랑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랑
5. 시작의 뜨거움보다 끝까지의 지속

> **마태복음 24:12**
>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는 그리스도의 경고: 사랑에도 가짜가 있다
>
>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 **마태복음 24:13**
>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식는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 아니다
>
>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4.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워 보이는' 사랑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주 강하고 진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복음서의 많은 유대인 무리를 예로 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밤낮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열광은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당시에 그리스도를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순수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읽는 것입니다.

1. 강하고 진해 보여도 은혜가 아닐 수 있다
2. 예: 먹지도 자지도 않고 따르던 무리
3. “어디든 따르겠다”, “호산나”의 외침
4. 바울은 '변함없는' 사랑을 따로 축복
5. '변함없이'는 원문상 '부패함 없이'

> **마태복음 8:19**
> (본문이 암시하는 장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고백도 참 사랑의 증거는 아니다
>
>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 **마태복음 21:9**
> (본문이 암시하는 장면) “호산나”를 외친 무리의 열광이 은혜 없는 사랑일 수 있다
>
>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에베소서 6:24**
> '변함없이(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자를 축복: 부패한 가짜 사랑이 있음을 전제한다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 5.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가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랑도 흉내 낼 수 있다고 에드워즈는 이어 갑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 없이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주 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뜨거운 애정, 공동체 안의 진한 정이 곧 은혜의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무엇이 참 사랑인지는 3부에서 따로 다룹니다.

1. 사람을 향한 사랑도 위조될 수 있다
2. 은혜 없이도 강한 인간적 사랑은 가능
3. 갈라디아 교인: 눈이라도 빼 줄 기세
4. 바울: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5. 사역자·공동체를 향한 정 ≠ 은혜의 증거

> **갈라디아서 4:15**
> 눈이라도 빼 주려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강한 사랑을 보여 준다
>
>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 **갈라디아서 4:11**
> 그런데도 바울은 헛수고일까 두려워했다: 강한 사랑도 헛것일 수 있다
>
>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과 겸손보다 더 많은 모조품을 가지고 있는 은혜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강하게 끌리거나 거부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분보다

소극적 표지

있든 없든 신앙의 진짜·가짜를 판정해 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제2부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

성령께서 사람을 실제로 새롭게 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일시적 감동과 구별됩니다.

신앙고백자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조품(가짜)

겉모양은 진짜를 정교하게 닮았지만 속의 본질과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미덕과 은혜

사랑·겸손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만들어 내시는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끝까지 견딤

처음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패함 없이(변함없이)

순수하고 썩지 않으며 영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사랑은 가장 높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많이, 가장 정교하게 위조됩니다.
-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른 무리, 식어 버린 많은 사람의 사랑,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이 그 증거입니다.
- 판단 기준은 사랑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부패함 없이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인가가 기준입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7편 · 갑자기 떠오른 말씀과 넘치는 사랑 · 표지 5·6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